'시민 아이디어 반영' 문학터널 구조개선 준공

문학·청학 사거리 연결 터널 보행자 통로 신설 등
20건 시민 아이디어 중 9건 채택 설계 반영 공사

지난해 4월, 20년간의 유료 운영을 마치고 전면 무료화된 문학터널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구조 개선사업이 28일 완료된다.

인천시는 문학 사거리와 청학 사거리 및 문학산 산책로 연결을 위한 터널 내 보행자 통로 신설과 교통 흐름 개선 등을 위한 중앙녹지대 조성을 포함한 문학터널 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이어주는 문학터널은 1999년 11월 문학개발(주)이 총사업비 813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길이 1.5㎞, 왕복 4차로(쌍굴) 민자 터널로 2002년 4월 개통해 협약에 따라 20년간 유료로 운영된 후 시가 지난해 4월 이관받아 무료로 운영 중이다.

문학터널 구조 개선 사업은 터널 무료화에 따른 여유 부지 활용 등을 위해 진행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20여 건의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 9건을 채택하고 설계에 반영해 공사가 진행됐다.

이번 구조개선사업에서는 먼저 불필요한 요금소를 철거하고 차량 과속주행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음포장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중앙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단절됐던 문학 사거리와 청학 사거리, 문학산으로 보행 이동을 위해 터널 내 보행로를 신설했다.

최기선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학터널이 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더욱 활용 가치가 높아졌으며, 특히 시민 눈높이 참여형 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First Day at Lagan College

도성훈 시교육감이 북아일랜드 통합교육협 등을 방문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시교육감, 북아일랜드 통합교육협 등 방문

"지속적 교류 평화교육 활성화 노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진 교육정책탐방 국외(유럽) 연수 셋째 날인 26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을 이끄는 통합교육협회와 라간 통합학교, 평화교육기관인 코리밀라를 방문했다.

도 교육감은 모신 마샬 북아일랜드 통합교육협회장과 함께 평화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 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라간 통합학교를 찾아 구체적인 평화교육 사례를 확인했다.

라간 통합학교는 약 40년간 평화교육을 실천 중인 북아일랜드의 대표적인 학교다. 종교나 인종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을 실천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학습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문단은 마지막으로 코리밀라를 방문해 데릭 윌슨 교수의 강연을 듣고 평화의 개념과 필요성, 평화교육 실천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도 교육감은 "평화교육을 위한 라간 통합학교의 교육과정 구성과 교사 연수 과정은 우리 인천교육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할 수 없기에 이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난정평화교육원을 중심으로 북아일랜드 평화교육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서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 인천 서구 제공)

서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지역화폐 연동 걷기 챌린지 등 수행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지표 개선 인정

인천 서구는 서구보건소가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및 조사관리 보고대회'에서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지표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요 건강행태 지표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서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연동 걷기 챌린지 사업', '즐길걷기교실', '비만날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이 2020년 69.3%에서 2021년 72.3%로 개선됐다.

또한 권역별 지역 건강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보고대회의 가장 상위 표창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희 기자 kangyh6240@naver.com

스마트 관광 시대 빅데이터 기술 등 특강

인천시의회 '빅데이터 기반 인천관광활성화 연구회'

인천시의회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천 관광 활성화 전략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김용희)'는 최근 김용희(국·연수2) 의원을 비롯해 김재동(국·미추홀1)·신성영(국·중구2)·이단비(국·부평3)·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천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연구회는 문화컨설팅 전문그룹 (사)헤이온와이드 나성수 대표를 초청해 '스마트 관광 시대의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응용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나 대표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 시스템 개발, 관광지 분석 및 개선, 관광객 유입 증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 해안관광지 및 도서지역의 여행 인식도 개선, 관광객 접근성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성 증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향 등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활성화 전략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광정보 플랫폼 개발, 관광지 인프라 개선, 청년창업 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연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해 인천의 관광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도성훈 시교육감이 북아일랜드 통합교육협 등을 방문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천시교육청 제공)

동구의회, 추경예산안 심사

노인복지관 직영 등 197억 증액

인천 동구의회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2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42억 대비 약 197억이 증가된 3,239억으로, △국·시비 또는 조정교부금 등의 해당 사업비 반영에 따른 예산 변동 △동구 노인복지관 직영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 발생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된 보조사업 추가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부족분 반영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복은 24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3일간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액 변동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추경안 편성의 적정성을 살폈으며 26일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했다.

이영복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추가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2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남동구, 구월서초 일대 안심마을 조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

인천 남동구가 구월서초등학교 일대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안심마을로 조성한다.

구는 최근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환경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구월3동 구월서초등학교 일대에 4억 원을 투입,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기법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사업대상 지역은 약 11만㎡ 규모로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고, 구월서초등학교와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일방적인 시설물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올해 8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한 후 9월 공사를 시작해 11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원도심 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공공 디자인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강화군, 광역시도 재정비노선 이달 중 고시

강화~하점광역시도 78호선 등

인천 강화군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 현장여건 변화를 반영한 관내 광역시도 재정비 노선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4월중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노선 재정비 사항으로는 인화~강화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후 폐지된 국도 구간(강화~하점)은 광역시도 78호선으로 신규지정 했다. 또한 영종~강화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현재 우선 공사 추진 중인 영종~신도 종점에서 강화군까지 구간을 연장하여 광역시도 73호선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광역시도 노선 재정비를 통해 영종에서 강화군까지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강화~영종 구간 도로가 완공되면 인천국제공항까지는 20분, 인천시 송도까지는 30분 내외로 가능해져, 강화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시내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인천시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강화군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이를 통한 강화군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편집=정아정 기자 [illegible]